

반전 운동 모니터 보고서

<반전평화연대>

제 1호

2009년 10월 15일 발행

반전평화연대(준)

<http://antiwar.textcube.com>

:: 목차

여는 말 1

동향 2

1. 아프가니스탄 _ 확대되는 오바마의 '아프파' 전쟁 ... 2
2. 이라크 _ 철군으로 포장한 점령 연장 계획 ... 5
3. 팔레스타인 _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정치적 분할 ... 7

번역글 9

1. 미국의 점령에 맞선 아프가니스탄의 목소리 _ 말라라이 조야 인터뷰 ... 9
2. 오바마의 노벨상 수상은 납득할 수 없는 일 _ 타리크 알리 인터뷰 ... 16

반전 운동 소식 18

- 1) 세계인들은 말한다 : 당장 아프간에 주둔중인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 2) 되살아나기 시작한 미국 반전 운동
- 3) 10월 24일 아프간 철군을 위한 영국 전국 집중 시위
- 4) 아프간 즉각 철군을 요구해 온 독일 좌파당이 총선에서 약진하다

[여는 글]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지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항구적 자유 작전”으로 시작한 아프간 전쟁이 “항구적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승리를 장담하던 전쟁광들은 아프간 전쟁이 제2의 베트남 신드롬을 낳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다시 반전 여론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반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아프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군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8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테러를 근절했습니까? 아프간에 민주적인 국가가 수립됐습니까? 아프간의 여성 인권이 개선됐습니까? 테러는 이미 전쟁이 6년째 접어들 무렵부터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대를 파병한 덕분에 테러 대상 국가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부정선거로 얼룩진 아프간 대선에서 미국과 서방 정부들은 부패한 카르자이를 지지했습니다. 아프간인들 다수가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원합니다. 도대체 오바마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아프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성들의 인권은 어떻습니까? <반전평화연대>에 실린 아프간 여성 국회의원인 말라라이 조야의 인터뷰는 전쟁과 점령으로 아프간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고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살과 점령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점령군의 철수입니다.

미국과의 “혈맹”을 과시하던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전쟁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오바마에게 선물을 안겨 주려 합니다. 최근 정부는 오바마 방한(11월 18~19일)을 앞두고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에 파견돼 있는 지역재건팀(PRT)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프간인들을 위해 파견했다던 PRT도 공격 대상이라면 아프간인들에게 PRT는 점령군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군대를 파병할 것이 아니라 파견된 PRT를 철수해야 합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아프간 전쟁과 이명박 정부가 재파병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 반전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10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매달 오바마의 ‘아프파’ 전쟁 동향, 반전 운동 소식 등 반전 글과 반전 운동의 소식을 담은 반전 운동 모니터 보고서 <반전평화연대>를 발행합니다. 이 보고서가 반전 여론을 높이고 반전 운동의 토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값진 소식들을 전달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향 1_ 아프가니스탄]

확대되는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

아프간 전쟁이 10월 7일로 8년째를 맞았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전쟁으로 연합군과 아프간군이 6천6백여 명 사망했고, 이 중 1천4백여 명이 외국군이다. 민간인 사망자는 집계조차 불가능할 정도이다. 올해 5월 아프간 서부 파라주(州) 지역의 연합군 오폭으로 1백50여 명이 사망한 사건과 9월 4일 쿤두즈 강 인근에서 나토군의 공습으로 1백30여명이 사망한 사건은 점령이 지속될수록 민간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바마에게 아프간 전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프팍' 전쟁의 전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단일한 전략으로 삼아 승리를 장담하며 집권 직후 2만 1천 명을 증파했다. 올해 아프간에 주둔하는 외국군(미군과 나토군)의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스탠리 맥크리스털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은 4만 명의 미군 증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증파로 아프간 점령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소련은 20만 명이 넘는 병사라도 아프간을 점령하지 못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연합군이 있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수를 50만 명으로 확대해야 안정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정선거로 얼룩진 이번 아프간 대선은 오바마 정부가 이 전쟁을 지속할 명분과 정당성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 때문에 증파를 둘러싸고 행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더 커지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는 아프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재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기브스는 아프간 전략 재검토에서 미국의 철군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아프가니스탄에서)떠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살과 점령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아프간 철군이다.

선거 부정에도 미국과 서방 정부는 하미드 카르자이를 지지하다

미국 내 언론은 9월 28일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달 실시한 아프가니스탄 대선 결과가 부정투표 논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의 재선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들은 탈레반 소탕 작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카르자이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 개표 결과 아프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카르자이 대통령이 54퍼센트 이상을 득표했다고 밝혔다. 유엔이 지원하는 선거 감독기구인 아프가니스탄 선거민원위원회(ECC)는 선거 부정이 발견된 70여 개 투표소의 투표용지를 개표 과정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선거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최근 해임된 피터 겔브레이스 유엔 아프간 대표사무소 부대표는 아프간 대선에서 심각한 부정 선거가 벌어졌다고 고발했다. 그리고 자신의 해임이 선거 부정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유엔을 비난했다. 겔브레이스는 카르자이가 얻은 표 중 30퍼센트 이상이 부정으로 얻은 표이고,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유엔이 카르자이에 편파적이었다고 고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겔브레이스를 해임하면서 언론과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유엔이 아프간 대선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선거 부정 의혹이 증폭되자 ECC는 당초 전체 2만 6천3백 개 투표소 가운데 13퍼센트의 투표소인 3천4백98개 투표소 선관위에 재검표를 지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ECC와 합의에 따라 3백58개 투표함을 무작위로 선정해 표본조사 방식의 재검표를 실시기로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재검표를 시작했지만 재검표 대상 투표함 가운데 84개가 아직도 카불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민간인 피해를 속출할 무인기 프레데터 확대 운영 방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겠다던 스탠리 맥크리스털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최근 병력을 칸다하르와 카불 등 대도시 지역으로 집중하는 대신, 농촌 지역은 무인기인 프레데터에 맡기겠다며 병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공습에서 오폭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동안 오폭으로 발생한 민간인 피해를 지적하며 야만적인 공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프레데터를 이용한 공격 확대는 민간인 사상자를 급증하게 하는 야만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미 오바마 정부들어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지역에는 무인기를 이용한 공습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난 9월 4일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위치한 쿤두즈 지역에서 나토군의 공습으로 1백여 명이 사망했고, 그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

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지난 5월 미군의 공습으로 1백5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이후 4개월만의 일이다. 나토는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탈레반 대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라고 증언하며 갑작스런 공습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번 공습은 군수물자인 석유탱크를 이동 중이던 나토가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석유탱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났다. 석유탱크를 탈취한 탈레반 대원들은 쿤두즈 강 너머로 석유탱크를 옮기는 데 실패하자 밸브를 열어둔 채 석유탱크를 강가에 버리고 떠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근처 오마르 케일 마을 사람들은 석유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들고 석유탱크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곧 석유탱크의 위치를 찾아낸 나토는 석유를 받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공습을 퍼부었다.

아프간 점령군, 대낮 포위공격을 받아 1년 만에 최악의 피해 발생

10월 초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이 대낮에 포위공격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3백여 명의 저항군이 3일 아침 동부 누리스탄 지역 파키스탄 접경지대의 미군 기지 2곳에 총알과 로켓 추진 수류탄을 쏟아 부으며 공세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미군 8명과 아프간 정부군 4명이 사망해 1년여 만에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전투는 1년 전에 인근 쿠나르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2백여 명의 아프간 반군이 70여 명이 지키는 작은 미군 기지를 포위 공격해 미군 병사 9명이 사망했다. 저항 세력의 이번 공격은 아프가니스탄 시골 지역을 여전히 미군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동향 2_ 이라크]

철군으로 포장한 '점령 연장' 계획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점령한지 6년이 훌쩍 넘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2003년 이래 지금까지 학살당한 이라크인의 숫자가 1백2십만 명이 넘는다(<http://www.justforeignpolicy.org> 참고). 또한 사망한 미군의 숫자는 4천3백여 명이고 이라크 전쟁에 쏟아 부은 돈은 6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라크 철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오바마는 진정 부시 정권과 다른 행보를 걷고 있을까. 오바마는 취임 이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2011년 철군' 약속을 지키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철군 계획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철군과는 거리가 먼 장기 점령 계획임이 금세 드러난다.

미국과 이라크 간 주둔군지위협정(SOFA)

오바마가 내세우는 철군 계획은 지난 해 말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맺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이라크 주요도시에서 지방으로 철군 ▲ 2010년 6월 미군주요병력 8만 명이 이라크에서 철수 ▲ 2011년 미군지원병력 5만 명 완전철수이다.

<이라크 미군 철군 일지>

2003. 4	미군, 바그다드 점령 뒤 연합군 임시군정(CPA) 설립
2004. 6	미군, 이라크 측에 주권 이양
2005. 5~6	이라크 총선 및 이라크 새 정부 출범
2007. 1	미군 대대적인 저항세력 소탕 작전, 이라크에 2만명 증파
2008. 8	미군, 바그다드 주변 안바르주 치안권 이라크에 이양
2008. 11	미-이라크 정부 간 미군 주둔협정 체결, 단계적 철군 확정
2009. 1	미군, 바그다드 그린존 치안권 이라크에 이양
2009. 6. 30	미군, 이라크 주요도시에서 지방으로 철군
2010. 6.	미군 주요병력 8만명 이라크에서 철수
2011. 12. 31	미군 지원병력 5만명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

2008년 말 당시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협정을 체결했던 것은 저항세력의 소탕에 집중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차례 실행했음에도 이라크의 수령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잃었던 부시와 이라크 민중의 미군 철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라크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철수 계획은 말 그대로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계획'일 뿐이다. 이 계획 덕분에 미국은 2008년 말에 유엔의 위임시한이 끝났지만 이후 3년 간 안정적으로 이라크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군이 이라크 치안을 위해 주둔한다는 거짓말

미국과 이라크의 정부 고위 관리들은 철군 계획이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며 장기 주둔의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오바마 정부가 말한 철군이 완전 철군인지 주둔군을 남겨두는 부분적인 철군인지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 미국은 그 동안 철군이 이라크 치안의 안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라크가 자체적으로 치안을 통제할 수 있게 되더라도 중동에 걸린 막대한 이해관계, 예컨대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라크 미군 주둔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라크 점령기간 동안 막대한 재정을 들여 건설한 기지들과 각종 시설들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천 억 달러를 쏟아 부은 전쟁에 대해 '본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점령이 길어질수록 불안정해지는 이라크

점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라크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 철군 계획의 첫 단계로 미군이 이라크의 주요 도시에서 철수했지만 점령 세력과 친 점령 정부에 대한 저항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에는 재무부와 외무부 건물 앞에서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했고 외국 대사관들과 정부청사가 밀집한 그린존 안에는 박격포 2발이 떨어졌다. AFP통신은 이라크 내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 바그다드 중심지에 폭탄 및 박격포 공격이 잇따라 최소 95명이 숨지고 56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격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지난 6월 바그다드 등 주요 도시에서 철수한 후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됐다. 이 날은 2003년 8월19일 바그다드 유엔본부 입주 호텔에 대한 폭탄공격으로 22명이 숨진 지 정확히 6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점령 하에서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15만에 이르는 미군과 외국군대의 조건 없는 완전한 철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미군은 '철군계획'으로 포장한 점령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 당장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동향 3_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정치적 분할

1967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6월 하마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한 파타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2008년~2009년 겨울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여 가자지구 150만 명(한국의 광주광역시 인구와 비슷)의 주민 가운데 1,400여명이 사망하고 5,3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봉쇄는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자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봉쇄

봉쇄는 육해공 모든 방면에서 진행된다. 먼저 가자에 있던 공항은 2002년에 이미 이스라엘이 파괴한 상태다. 바다에는 이스라엘의 군함이 떠서 팔레스타인 선박이 해안에서 4.5km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지난 8월31일에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선을 공격해서 어민 18명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를 완전히 파괴했다. 9월23일에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선 한 척을 공격해 5명의 어민을 납치해 갔다. 이스라엘이 허용한 지역 내에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더라도 어민들은 사격과 납치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좁히고 있다.

땅에서는 사람·자동차·상품의 이동을 차단한 채 식량과 연료 등의 공급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봉쇄의 영향으로 가자지구에 있던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률은 65%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급되는 물품이 제한됨으로써 식량·의약품·야채 등의 가격은 자꾸 올라간다. 건설 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겨울 공격으로 완전 또는 부분 파괴된 6천 채 가량의 주택에 대한 재건축과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수만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파괴된 자신의 집 근처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거나 이웃이나 친척집에 의지하고 있다. 유엔 기구인 OCHA(유엔인도주의업무지원국)가 지난 2009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에 44%의 가자 주민이 안정적으로 식료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그 수치가 25%로 떨어졌다. 연료 공급과 발전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하루 4~8시간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지난겨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기 시설이 파괴된 뒤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 가운데 10%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봉쇄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외국인 활

동가나 구호활동가들, 기자들도 가자지구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자지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가자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자 주민들의 생명줄, 땅굴

오랜 봉쇄는 결국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자-이집트 사이에 땅굴을 파도록 만들었고, 가자 주민들은 땅굴을 통해 각종 생필품을 들여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이집트 땅굴에 대해 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 또한 땅굴이 이스라엘의 봉쇄에 흠집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굴을 통한 물품의 이동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가자 주민들은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팔아 땅굴을 통해 들어온 질 나쁜 상품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써야 하는 꼴이 되었다. 또한 2007년 이후 2009년 9월까지 붕괴와 감전 등 땅굴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 1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사망하였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하여 가자 주민들과 하마스에게 저항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파타에게는 서안지구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금 팔레스타인은 사실상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분단된 상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사이를 오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마스의 가자 : 파타의 서안'으로 분할함으로써 지리적 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할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분할은 '점령 : 반점령'이 아니라 '파타 : 하마스'라는 대결 상황을 만듦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이 반점령 운동에 집중하기보다 내부적 투쟁에 힘을 쏟도록 만들고 있다.

[번역글 1_ 말라라이 조야 인터뷰]

미국의 점령에 맞선 아프가니스탄의 목소리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끝내야 한다

출처: 세계 사회주의자 웹 사이트(World Socialist Web Site,
www.wsws.org)

2009년 7월 25일자

글: 제임스 코건 (James Cogan, 호주 사회주의평등당 중앙위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여성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져다주었다며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소위 "좌파"와 진보주의자들은 말라라이 조야가 하는 이야기를 싫어한다. 31살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이자 정치인인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관해 깊이 있고 진실 된 이야기를 전한다. 바로 미국과 나토의 점령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주었다고 말이다.

이달 초 WSWs(세계 사회주의자 웹 사이트)는 말라라이 조야가 최근에 출간한 자서전 <나의 목소리를 높이다 Rasing my voice>를 홍보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하는 동안 그녀를 만나 장시간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 책에는 1979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파괴해온 외국의 점령과 그에 맞선 저항, 그리고 내전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말라라이 조야는 소련의 점령시기동안 이란과 파키스탄의 난민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후 그녀는 젊은 여성으로서 탈레반의 보수적인 여성 교육 억압에 맞서 싸우고 헤라트 지역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불법학교 운영을 도왔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부터는 부시 정부가 카블에 세운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의 친미 꼭두각시 정권에 맞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점령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것은 무자비한 군벌과 무장단체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내전에 휘말리게 했던 이들이었다. 1996년 말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탈레반이 이들 군벌과 무장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쫓아냈기 때문이었다.

25살이 되었을 때 말라라이 조야는 아프가니스탄의 새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2003년 12월에 소집된 로야 지르가의 참가자로 뽑혔다. 그녀는 군벌들이 저지른 많은 범죄행위에 대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준비했었으나, 헌법 위원회에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고 정부 측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다. 조야의 마이크는 2분마다 꺼졌고, 총회에서는 잠시 내쫓기기도 하였다.

2005년 9월, 말라라이 조야는 아프가니스탄 서쪽에 위치한 파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 2006년 5월에는 말라라이 조야가 의원들을 향해 "나라를 파괴하고 6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여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 그 후 조야는 다음 회기 국회에서 발언권을 제지당했다.

2007년 5월 21일에 아프간 의원 다수는 말라라이 조야가 의원들이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것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했다. 조야가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에서 마구간의 동물들도 다 나름의 쓸모가 있는데 "국회는 마구간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조야는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조야는 아프가니스탄의 친미세력과 탈레반 양측으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서 과도한 경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조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옹호하는 모든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다.

제임스 코건(이하 코건): 자서전 "나의 목소리를 높이다"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가?

말라라이 조야(이하 조야): 9/11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여성의 권리와 인권,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의 명분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선전과 거짓에 불과했다. 나는 이 책이 전 세계의 민주적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향한 투쟁에 필요한 것은 민주적이고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손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우리는 해방을 원한다. 점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9/11 이후에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권력을 가지게 된 근본주의적인 군벌과 마약을 거래하는 이들, 범법자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다. 그들은 이념적으로 탈레반과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마피아들이 통치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여성들에게 아주 힘든 상황이다.

코건: 2001년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야: 점령군은 왜 북부동맹군(반 탈레반 성향의 전 아프간 군벌들)에게 권력을 주었을까?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자신들의 전략적 정책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짐(군벌이 주요 정치세력이 되어 민중을 통치하는 상황)을 지웠다. 그리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군사시설은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가치를 가진 적과 전쟁을 통해 민주주의와 여성의 권리, 인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마약의 중심지로 변화시켰다.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유명한 마약 밀매상이다. 하미드 카르자이의 동생인 아흐메드 왈리 카르자이도 그 중 하나다.

그리고 이제 점령군은 탈레반과 협상을 하려한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헤크마티아르¹⁾와 심지어 몰라 오마르²⁾에게까지 정부 관리가 되라는 제안을 했다. 이미 정부관리가 된 탈레반들이 있다.

코건: 헤크마티아르나 다른 군벌들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알고 있는가?

조야: 정부와 점령군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당시에 수차례에 걸쳐 카르자이가 그들을 초대했었다. 오바마 이후에도 온건한 탈레반들을 불러들여 정부 관리 자리에 앉혔다. 점령군과 정부는 우리를 기름 끓는 팬에서 불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오바마의 정책은 부시와 아주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시보다 더 나쁘다. 파라지역에서 벌어진 공습사건은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다.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완전한 학살이었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다. 미군은 백린탄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미군은 정확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저 20~3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만 말했다. 그 후에는 탈레반이 민간인들을 죽였다고도 말했다. 이것은 거짓 말이다. 카르자이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현장에 보내고 14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사건은 미국정부가

1) 헤크마티아르가 이끄는 헤즈브 이 이슬라미(Hezb-e-Islami)는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동부에서 점령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다. 2009년 5월에 게릴라전을 끝내고 아프간 정부에 참여하는 가능성에 대해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크마티아르는 과거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완전한 면죄를 받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헤즈브 이 이슬라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 몰라 오마르는 탈레반의 종교 지도자이다. 탈레반은 1996년에 군벌을 몰아내고 과격 이슬람 국가를 세웠으나 미군의 침략으로 쫓겨났다. 몰라 오마르는 파키스탄에 있는 은신처에서 탈레반 저항군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미드 카르자이는 수차례에 걸쳐 몰라 오마르에게 "평화 협상"을 공개 제안했다. 가장 최근에는 6월 13일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탈레반은 협상 제안을 거부해왔다.

아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르고 있는 전쟁범죄이다. 점령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독립을 잃었다. 만약 점령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스스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몇 달 동안 400명 정도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오바마는 더 많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배치하려고 한다. 하지만 점령군의 숫자가 많을수록 갈등은 심해지고, 더 많은 전쟁을 불러올 뿐이다. 오바마 정부 하에서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국경 지역의 무고한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있다.

코건: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점령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탈레반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뿐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조야: 우선, 지난 8년 동안 호주 정부가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따라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국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적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을 넘겼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과 민주적인 정당들이 있지만 오늘날 그들의 힘은 매우 약하다. 카르자이 정부는 꼭두각시였다가 마피아 같은 정권이고,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이다. 카르자이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재건의 명목으로 180억 달러를 받았지만, 1천8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원한 대부분의 돈이 군벌과 돈을 기증한 이들 자신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수도 카불은 구걸하는 사람들의 도시로 변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미국이 하루에 전쟁 비용으로 1천만 달러를 사용하는 동안 80%의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사이에 끼어있다. 외부의 적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민중의 적에게 돈과 권력,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쉽게 내부의 적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중의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아프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이나 아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잃은 호주와 미국, 영국의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그들도 그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코건: 아프가니스탄 8월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나?

조야: 우리는 점령군과 부패, 군벌, 마약 밀매자들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희망을 두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전혀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카르자이는 부끄러운 인물이다. 그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파힘³⁾과 칼릴리⁴⁾와 같은 인물을 부통령후보로 내세우면서 민중들을 기만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와치>조차도 카르자이가 이번 일로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번 선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꼭두각시가 다른 꼭두각시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번 선거의 당선자가 백악관과 미 국방부의 밑에서 선택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 예를 들어, 출신 지역인 파라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

조야: 대다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같이 파라지역 주민들도 가난과 실업, 불안정한 치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한 쪽에는 정부 관리 자리를 맡아서 파라를 통치하는 지역 군벌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레반 범죄자들이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북부 지역에서는 북부동맹군이 권력을 쥐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정의란 없다. 성폭행 범죄율이 역사상 최고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 12건의 성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여성의 경우 세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이 국회의원의 아들이어서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 수치를 았다. 이번에 카블에 돌아가면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다. 나는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분신(자살)을 하지 않도록 도와려고 한다.

우리가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자들은 교육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교사들을 위협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들은 여학생의 얼굴에 염산을 던지기도 한다. 칸다하르에서 15명의 여학생들이 염산테러를 당했다. 북부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의 여학생들이 독극물 테러를 당했다.

학교의 운영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들의 월급이 몇 달씩 밀리기도 한다. 교사들은 한 달에 60달러 정도를 받는데, 생활을 하기에 아주 부족한 액수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립학교와 사립 대학교를 지었다. 좋은 교사들은 모두 그런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군벌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그런 학교에 다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니지 못한다.

교육의 수준도 매우 낮다. <옥스팜>에 따르면 여자 아이들 5명 중 1명만 초등 교육을 받고, 20명중 1명이 고등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탈레반이 통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20만 명의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다.

3) 모하마드 카심 파힘은 타지크(Tajik)민족 군벌로 2001년 10월에 북부동맹군의 사령관을 맡으며 미군의 탈레반 축출을 지원했다. 1990년대에 파힘의 군대는 카블을 중심으로 민간인에대한 학살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4) 카림 칼릴리는 하자라(Hazara)민족의 권력자로 카르자이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냈다. 파힘과 마찬가지로 그는 1992~1996년 내전 당시에 민간인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코진: 당신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조야: 내가 처한 상황도 다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비슷하다. 2003년에 군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내 삶은 변했고 위협을 받게 되었다. 매일 나는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게다가 나는 여성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여성에 적대적이다. 나는 다섯 번이나 살해 위협을 받았다. 거주지를 옮겨다녀야했고, 내 자서전에 나와 있듯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내 삶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한 예이다.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내가 의회에서 진실을 말했다기 때문에 내 마이크의 전원을 끄고, 나를 위협했다. 2006년 5월에 그들은 물병을 던지고 국회 건물 내에서 나를 강간하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내가 그들의 범죄를 폭로할 때마다 그들은 나를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 "비 무슬림"이라고 부른다.

권력자들은 탈레반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을 정치와 섞어버린다. 그들은 이슬람을 채찍처럼 이용한다. 누구도 세속주의(종교와 정치 분리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의회에서 내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한 인터뷰 내용을 이용해서 나를 내쫓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다. 그들은 나의 변호사도 협박했다. 국회에서 그들은 나를 총살시켜야한다고까지 말했다.

어쨌든, 내가 그들에게 말했듯이 "언젠가 당신들은 나의 육체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민중들의 목소리까지 죽일 수는 없다. 진실은 꼭 밝혀진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정치적인 침묵이 두렵다.

코진: 서구 정부들은 만약 외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 내전이 일어날 거라며 점령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조야: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면 내전이 일어날 거라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점령이 시작되고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얻었던 제한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9/11 이후, 점령자들은 이제 여성들이 부르카를 벗어도 된다고 말했다. 로라 부시는 항상 부시 행정부에 이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때에 부르카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유일한 문제도 아니었다. 요즘에 여성들은 안전을 이유로 부르카를 쓴다.

이것이 바로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점령군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적을 지원하고 있다. 점령군은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이끌어갈 방향을 찾

을 능력이 있다. 두 명의 적보다는 한명의 적과 싸우는 것이 훨씬 쉽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끝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민중을 겨냥한 전쟁이다. 미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미국은 바그람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세우고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미국은 바그람에 관타나모 기지를 대신할 기지를 만들기 위해 8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절대로 점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언젠가 그들이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얻은 긍정적인 것은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다.

[번역글 2_ 타리크 알리 인터뷰]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오바마의 '말'과 달리 현실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다음은 미국의 진보적인 라디오-TV 뉴스 프로그램 <데모크라시 나우(Democracy Now!)>가 반전 활동가이자 <뉴레프트 리뷰> 편집자인 타리크 알리를 만나 인터뷰한 것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DN: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타리크 알리: 노벨상위원회의 결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들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평화애호가로 알려진 바 없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지미 카터 등등. 이번에 오바마를 수상자로 낙점한 것을 보면, 노벨상위원회가 더 기다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기다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여전히 이라크에 남아 있고 미군기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 존속할 가능성이 큼니다. 오바마가 더 많은 군대를 보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과 나토군 모두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전쟁은 파키스탄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벨상위원회의 결정은 놀랍다기보다 납득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노벨상위원회는 굉장히 진지하게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만, 비록 그들이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38년에 그들이 노벨평화상을 히틀러와 간디 중 누구에게 줄 것인지 고민하다 결국 난센 국제 난민사무국에게 줬다는 사실요. 물론 그것은 히틀러나 간디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노벨평화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직 대통령, 즉 권력을 쥔 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상을 쥐선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노벨상위원회였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두 사람에게 줬을 겁니다. 첫 번째 후보는 노엄 촘스키입니다. 그는 평생 평화를 위해 싸운 투사였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무미아 아부 자말입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정의가 바로 서길 기다리며 감옥에서 비폭력 저항을 해 왔습니다. 만약 이 두 후보에게 상이 수여됐다면,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줬을 겁니다.

DN: 노벨상위원회는 오바마가 무슬림 세계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타리크 알리: 네, 오바마는 카이로에서 무슬림 세계를 향해 연설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그곳에서 무슬림 세계를 향한 연설을 했지요. 물론 오바마의 연설은 전임자 부시에 비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즉, “당신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환대였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집권 세력인 네타냐후 등 극우파들에게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겠다는 약속도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과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슬림 세계와 대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할 때, 그의 말이 아니라 실천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반전 운동 소식]

전 세계인들은 말한다 : 당장 아프간에 주둔중인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 세계 50퍼센트가 넘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프간 전쟁 종식과 점령군의 즉각 철군을 원한다. 2007년 아프간에서 철군한 한국에서도 59퍼센트의 사람들이 철군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동맹국들이 군대를 아프간에 보내지 않아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과의 “혈맹”을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 항쟁에 밀려 아프간 재 파병 기회를 놓친듯하지만 여전히 아프간 재 파병 기회를 엿보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다시 아프간에 한국군을 보내지 못하도록 반전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국가별 아프간 반전 여론>

아르헨티나	77%	캐나다	52%	이집트	70%	이탈리아	58%
호주	66%	중국	70%	프랑스	64%	일본	51%
브라질	56%	체코	50%	독일	59%	요르단	86%
불가리아	72%	덴마크	55%	인도네시아	66%	멕시코	51%
네덜란드	74%	파키스탄	72%	폴란드	68%	포르투갈	52%
루마니아	71%	슬로바키아	61%	한국	59%	스페인	54%
터키	49%	미국	58%	영국	53%	팔레스타인	90%

(출처 : 영국 전쟁저지연합 www.stopwar.org.uk)

되살아나기 시작한 미국 반전 운동

미국 내 반전 운동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4일 1만 여 명이 모여 월스트리트를 행진하며 벌인 반전 시위 이후 반전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전 운동 단체들은 베트남 반전 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양하고 대중적인 반전 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 초에는 백악관 앞 잔디밭에 5백 쌍 이상의 군화를 전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군화들은 아프간에서 죽은 군인들을 상징한다.

부시 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크로포드 별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전 운동을 고무한 신디 시한의 말처럼 “오바마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면 아프간에서 죽은 군인들을 상징하는 5백 쌍이 넘는 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오바마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 깨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오바마의 허니문은 끝났으며, 사람들은 더는 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반전 운동 모니터 보고서

10월 5일 비폭력저항전국민운동(NCNR)은 백악관 앞을 행진했고, 항의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일에는 평화정의연합(UFPJ)과 다양한 반전 단체들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 반대하는 지역 행동을 벌였다.

또한 반전 운동 단체들은 10월 17일 베트남 전쟁 모라토리움 40주년을 기념해 지역 행동을 호소하고 있다. 40년 전 이날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 50만 명이 행진한 날이다.

영국 10월 24일 아프간 철군을 위한 런던 전국 집중 시위

지난 아프간 대선을 앞두고 영국군 사망자가 속출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아프간의 민주주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희생이라며 거세지는 반전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아프간 대선이 부정 선거로 얼룩지자 웅색한 명분도 사라져 버렸다. 영국의 전쟁저지연합(www.stopwar.org.uk)은 10월 24일 영국 군대와 모든 점령군의 아프간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전국 집중 시위를 런던에서 개최한다.

아프간 즉각 철군을 요구해 온 독일 좌파당이 이번 총선에서 약진하다

지난 9월 27일 독일 총선에서 독일 내 유일하게 독일군의 아프간 즉각 철군을 요구로 내 건 좌파당이 2005년 총선 때보다 3.2퍼센트 더 많은 11.9퍼센트를 득표해 76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독일은 현재 4천2백 명의 군인을 아프간에 파병했다. 지난 9월 초 아프간 쿤두즈 지역의 나토군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는데, 독일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이 공습이 진행돼 당시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반전 여론이 고조됐다.

Foreign Policy In Focus, November 2, 2009

A Call for Clarity on the Afghanistan War

Asking ordinary women and men to have a seat at a negotiating table with war criminals is akin to asking them to silence themselves or mark their foreheads with a target

Sonali Kolhatkar



Sonali Kolhatkar addressing an anti-war protest in California

While President Barack Obama reviews his strategy on Afghanistan, a perfect moment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o end the war is slipping through our fingers. Whether it's because we seem to have bought into the lies about the goals of this war or because we mistakenly feel that a Democratic president is going to come to the right conclusion on his own, one thing is clear: There's no debate within the Democratic Party or in the White House about whether to end the war. The only thing being debated is how to continue the war.

Similarly, there's little debate among progressives about how this is a bad war, and at the very least we need an exit strategy. Paralysis has set in on the particular manner of ending the war: whether to wait for some sort of "peace process," to pull out troops now versus later, to preserve troop levels until Afghanistan's women are safe, or some variation of these questions. We're in a bizarre situation: As Obama waffles on how to continue the war in Afghanistan, progressives are waffling on how to end the war.

Despite som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Afghan and Iraq wars, U.S. military operations and their consequences in both countries are the same. Similar to Iraq, this war kills civilians

and soldiers causing misery on all sides. Similar to Iraq, this war has made women less safe. Similar to Iraq, this occupation has become unpopular on the ground. Similar to Iraq, our actions are leading to greater instability. And similar to Iraq, our tax dollars are being disappeared into a sinkhole of destruction rather than human needs. Yet, unlike Iraq, where progressives were clear right from the start on ending the war, Afghanistan seems to confuse our moral compass.

Our actions in Afghanistan have caused a perfect storm of untold numbers of civilian deaths, fundamentalist resurgence, and women's oppression. We're protecting a corrupt government with a puppet president and criminal warlords, and our deadly bombing raids have led to a devastated and rightly bitter population and a stronger Taliban. There's no promising indication that our military operations can improve the situation, no matter how many troops are added. If ever the Afghanistan war ever had any legitimacy, it's irreversibly gone.

Enabling Women's Oppression

One of the original justifications for the war in 2001 that seemed to resonate most with liberal Americans was the liberation of Afghan women from a misogynist regime. This is now being resurrected as the following: If the U.S. forces withdraw, any gains made by Afghan women will be reversed and they'll be at the mercy of fundamentalist forces. In fact, the fear of abandoning Afghan women seems to have caused the greatest confusion and paralysis in the antiwar movement.

What this logic misses is that the United States chose right from the start to sell out Afghan women to its misogynist fundamentalist allies on the ground. The U.S. armed the Mujahadeen leaders in the 1980s against the Soviet occupation, opening the door to successive fundamentalist governments including the Taliban. In 2001, the United States then armed the same men, now called the Northern Alliance, to fight the Taliban and then welcomed them into the newly formed government as a reward. The American puppet president Hamid Karzai, in concert with a cabinet and parliament of thugs and criminals, passed one misogynist law after another, appointed one fundamentalist zealot after another to the judiciary, and literally enabled the downfall of Afghan women's rights over eight long years.

Any token gains have been countered by setbacks. For example, while women are considered equal to men in Afghanistan's constitution, there have been vicious and deadly attacks against women's rights activists, the legalization of rape within marriage in the Shia community, and a shockingly high rate of women's imprisonment for so-called honor crimes — all under the watch of the U.S. occupation and the government we are protecting against the Taliban. Add to this the unacceptably high number of innocent women and children killed in U.S. bombing raids, which has also increased the Taliban's numbers and clout, and it makes the case that for eight years the United States has enabled the oppression of Afghan women and only added to their miseries.

This is why grassroots political and feminist activists have called for an immediate U.S. withdrawal from their country. After eight years of American-enabled oppression, they would rather fight for their liberation without our help. The anti-fundamentalist progressive organization,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RAWA), has called for an immediate end to the war. Echoing their call is independent dissident member of Parliament Malalai Joya, who tells her story in her new political memoir, *A Woman Among Warlords*. The members of RAWA and women like Joya are openly targeted by the U.S.-backed Afghan government for their feminism and political activism. RAWA and Joya have worked on the ground, risking their lives for political change and echo the vast majority of poor and ordinary Afghan women. It's they whom we ought to listen to and express solidarity with. If American progressives think they know better than Afghanistan's brave feminist activists on how liberation can be achieved, we're just as guilty as the U.S. government for subjecting them to the mercy of women-hating criminals.

No Negotiations with Fundamentalist Criminals

Some on the left have made the case that the Afghanistan war can come to an end through a negotiated peace process where everyone has a seat at the table, including women. But this ensures that only those within the corrupt clique of Afghan politics remain involved in the future of Afghanistan — such as a few female allies of the fundamentalists who are plentiful in the current government.

Joya struggled her way into getting a "seat at the table" through the 2005 elections. For representing her people's views that war criminals ought to be brought to justice, she has been rewarded with death threats, assassination attempts, and the loss of her electoral title. Asking ordinary women and men to have a seat at a negotiating table with war criminals is akin to asking them to silence themselves or mark their foreheads with a target.

The reason why democratic forces in Afghanistan are completely underground and constantly living in fear of being killed is that time and again the U.S. government has insisted on bringing warlords and even Taliban leaders to the negotiating table. Ask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o sponsor a "peace process" between civilian representatives and our warlord allies whose private militias we have armed, is the same as asking for exactly what President George W. Bush did eight years ago in Bonn, Germany after the fall of the Taliban. That process predictab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oday's corrupt government. In fac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very likely to patch up the recent failed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same way: by creating a power-sharing deal between two corrupt sides and their proxies and claiming that all sides were represented at the negotiating table.

Given our violent role in Afghanistan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scant credibility in sponsoring any kind of "peace" process. The most responsible action the U.S. can take is to end its occupation immediately, and clean up its mess.

Let's Call for an Immediate End to the U.S. Occupation

Those who make the case that withdrawing U.S. troops will unleash another bloody civil war where Afghan women and men will be at the mercy of the Taliban and warlords, are raising the exact same justification made for the war in 2001: that it's our moral duty to protect Afghans from fundamentalist violence. This logic ignores the fact that we have nurtured and created the very fundamentalist violence that targets Afghans as explained above. By empowering war criminals and protecting a corrupt government that has forgiven the crimes of all sides including the Taliban, and that even includes some Taliban leaders, all we have done is complicate a war that was on-going. "A member of RAWA who goes by the pseudonym Zoya in a U.S. speaking tour last month made it clear that it's hard to imagine things getting worse if the U.S. does pull out immediately. The damage isn't being prevented by the United States — it's being carried out by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subjecting Afghans to the three oppressive forces of a stronger Taliban, a corrupt and criminal government, and a deadly foreign occupation, the first thing we Americans can control most directly is to end our occupation immediately. This alone won't address the Taliban and Northern Alliance. But it will reduce the oppressive forces at work, and potentially reduce the legitimacy of the warlords and the motives driving the Taliban.

How do we undo the damage we have subjected innocent Afghans to? Afghans themselves have the answers to that. Surveys have shown that a majority of Afghans want a complete disarmament of our warlord allies — essentially that the U.S. needs to take back the guns we put into the hands of the Northern Alliance and their private militias. Surveys have also shown that Afghans want war crimes tribunals to hold all the corrupt and criminal fundamentalists accountable in some sort of court, perhaps eve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S. government officials shouldn't be exempt from this type of accountability either). With weapons, warlords, and U.S. troops gone, real democracy could potentially take root and pro-democracy forces could someday operate freely. Many have also called for a massive

Marshall Plan for poverty-stricken Afghanistan, to flood the country with money in the hands of small groups,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and eventually to help rebuild the country with a strong, non-drug-based economy. With all the money freed up from military operations that would be fairly feasible.

As for the Taliban, even the U.S. government publicly admits that the Pakistani government's own agencies have long supported the renegade army as a tool for national and regional stability. With the U.S. troops gone, the Taliban's raison d'être inside Afghanistan would be greatly weakened. If the United States were to take the lead in regional talks between Pakistan, India, Iran, Russia, and China to address the Pakistani government's fears of a hostile regime in Afghanistan, it would go a very long way toward undermining the Taliban.

These measures are necessary but may not guarantee stability for Afghanistan. Still the current occupation only guarantees instability, so at the very least the time for a non-military solution is now. In other words, we can choose to repeat a failed experiment with predictably negative results by extending the war in any number of ways. Or we can implement the complex, constructive measures that could potentially help stabilize Afghanistan, undermine the fundamentalist misogynist criminals, help the Afghan people take back their country, and undermine the conditions for violence.

These are complex demands to make of the Obama administration. But it has taken a complex set of destructive American policies and many years to destroy Afghanistan. It will take a similar amount of time and complexity, as well as trial and error, to help rebuild Afghanistan for ordinary Afghans, and by extension make Americans safer. We can make these demands as secondary points in our call for an end to the war. But the primary demand easily fits on a protest placard: "End the U.S. War in Afghanistan NOW." Let's make that call loudly, clearly, and ubiquitously, as soon as possible, so that Obama and Congress can't ignore us any longer.

Sonali Kolhatkar, a Foreign Policy In Focus contributor, is co-director of the Afghan Women's Mission and co-author of Bleeding Afghanistan: Washington, Warlords, and the Propaganda of Silence. She has worked in solidarity with RAWA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for nearly 10 years. For more information about Afghan Women's Mission, RAWA, and how to support Afghan activists, visit www.afghanwomensmission.org.

Characters Count: 13276

URL for news «A Call for Clarity on the Afghanistan War»
<http://www.rawa.org/temp/runews/2009/11/02/a-call-for-clarity-on-the-afghanistan-war.html>

News Archive of the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RAWA)**

testimony was worth half a man's testimony; a woman could not petition the court directly (this had to be done through a prescribed male member of her immediate family), of the right to recreation (all women's recreational and sporting facilities had been banned, women singers could not sing least their female voices corrupt males, etc.), and of the right to being human (they could not show their faces in public to male strangers, they could not wear bright colored clothing, they could not wear make up, they could only appear outside their houses clad head to foot in shapeless bags called burqas, they could not wear shoes with heels that click [least the clicking sound of their feet corrupt males], they could not travel in private vehicles with male passengers, they did not have the right to raise their voices when talking in public, they could not laugh loud as it lures males into corruption, etc. etc.)

This incredible list could be carried on and on but does not in itself constitute the whole of the tragedy which has engulfed the better half of Afghan society. Women are looked upon as war booty, their bodies are another battleground for belligerent parties. Atrocities in Bosnia pale when compared to atrocities in Afghanistan, but unfortunately for reason which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go into in this context, the world community neither heard nor cared about what was going on in Afghanistan.

Beating up of women for disciplinary reasons on the slightest pretext (wearing brightly colored shoes or thin stockings, having their bare ankles show when they walk, having their voices raised when they speak, having the sound of their laughter reach the ears of men strangers, having their heels click when walking etc.) was a routine phenomenon in Afghanistan under the Taliban. Through such public beatings (which more often than not have resulted in death or disablement of the victim) the Taliban had cowed the civilian population into submission.

With the fundamentalists' war mentality, and fanned by ethnic hatred and religious bigotry, all areas that come under their control are regarded as occupied land and the inhabitants are treated accordingly. Sexual crimes against women, gang raping, lust murders, abductions of young females, blackmail of families with eligible daughters, etc. were commonplace during the rule of the pre-Taliban fundamentalists, who now once again have key positions in the government of Hamid Karzai and are free to brutalize Afghan women in areas under their domination.

In connection with custodial violence against women, documentation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times of conflict and violence against refugee and internally displaced women we would first and foremost like to refer you to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s such as WOMEN IN AFGHANISTAN: A human rights catastrophe (March 1995) or AFGHANISTA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disaster (November 1995), as an eloquent testimony to the situation of women under the fundamentalists. You may find many more such documents on the web site of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Apart from the above, you can find a number of eyewitness accounts of atrocities by the Taliban and their Jehadi brothers on our web site.

After the 9/11 tragedy, when the US began bombing Afghanistan on October 7, 2001, the oppression of Afghan women was used as a justification for overthrowing the Taliban regime. Five weeks later America's first lady, Laura Bush, stated triumphantly: "Because of our recent military gains in much of Afghanistan, women are no longer imprisoned in their homes. The fight against terrorism is also a fight for the rights and dignity of women."

But unfortunately the reality shows a different picture. The people of the world should know that though the disgusting, ludicrous and oppressive



rule of Taliban was over in our ill-fated Afghanistan, but this never means the end of the horrible miseries of our tortured women. Because contrary to the aspirations of our people and expectations of the world community, the Northern Alliance, these brethren-in-creed of the Taliban and Al-Qaida are again in power and generously supported by the US government. Yes it has completely shattered the dream of our wounded people for liberation from the heavy chains of the Taliban tyranny, because the NA is nothing but a fragile coalition of a "batch of bandits" -according to the UN especial envoy- with a long list of crimes and brutalities against our people. Afghan people will never forgive them for the crimes they committed along with the so-called older generation of the Alliance, i.e. Dostum, Khalili, Sayyaf, Rabbani, Gulbuddin etc. while in power from 1992 to 1996. Only in Kabul 65,000 were killed during these bloody years.

Leaders of the Northern Alliance has no ideological difference with the Taliban. Some of them may talk even about "elections" and "women's rights", but in fact they are as much misogynist as the Taliban.

The war in Afghanistan has removed the Taliban, which so far does appear to be an improvement for women in certain limited parts of the country. In other areas, the incidence of rape and forced marriage is on the rise again, and most women continue to wear the burqa out of fear for their safety. The level of everyday violence in Afghanistan is something we would find it hard to imagine. "War on terrorism" has removed the Taliban, but it has not removed religious fundamentalism which is the main cause of all our miseries. It will require a very different approach indeed for those evils to be eliminated, which is RAWA's point.

And in fact, by reinstalling the warlords in power in Afghanistan, the US is ultimately replacing one fundamentalist regime with another.

Karzai has gathered all criminals around him and even some top Taliban leaders like Mullah Ghaus, Hakim Mujahid (Taliban spokesperson who was on a US tour only months before 9/11), Wakil Ahmad Motawakal (Taliban Foreign Minister), Mullah Zaheef (Taliban Ambassador in Pakistan), Mullah Hotaki, Mullah Arsala etc. have been forgiven by Mr. Karzai and allowed to open their office in Kabul. Instead of appearing in the court of justice for their crimes, in the name of moderated Taliban these criminal and misogynist elements are coming in political scene once again because the US policy in Afghanistan requires such deals with them. This is indeed an unforgivable and treasonable deal against our nation and especially our ill-fated women.

It is due to such dealings of Karzai government and his US masters with terrorist warlords that Taliban-like decrees are still in place on our unfortunate women. It was on April 23, 2005 that Amina, a 29 year-old woman was publicly stoned to death on the basis of a district court's decision in northern province of Badakhshan who was accused of committing adultery.

Whenever there are fundamentalists, there will be hostility against women and RAWA's struggle for women's rights will not be over. Beside the fundamentalists' crimes against women, old traditions also regard women as second sex and they are suppressed, so RAWA's mission for women's rights is far from over and we have to work hard for women's rights in Afghanistan. We need the solidarity and support of all people around the world.

[Fran?is](#) | [Deutsch](#) | [Italiano](#) | [Portugu?](#)

[Reports on the situation of Afghan women](#)
[Some of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aliban on women](#)



Public execution of an Afghan woman by Taliban in Kabul
Photos from a video film by RAWA ([click here to view more photos and movie clips](#))



Alarming rate of self-immolation among Afghan women

[\[Reports from Afghanistan\]](#) [\[Photo Gallery\]](#) [\[Home Page\]](#)

On the Situation of Afghan Women

Overview:

There never has been any reliable demographic statistics on Afghanistan for the past three decades. Of the estimated 16 million Afghans at the end of the 70s, over two million have been killed in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Soviet occupiers and later on in the civil war unleashed by fundamentalist



groupings enjoying the support of foreign powers. Another one and half million have been maimed by the war fallout, while nearly five million have been forced into refugee camps in Iran and Pakistan.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left inside the country have been internally displaced as a result of the unending war of the past three decades and in particular of the fundamentalist in-fighting from 1992-96. At the best of times the overall literacy rate was less than 20% amongst males and less than 5% amongst females. (These figures are considered by some as very optimistic.) Against such a backdrop, the country slid into the hands of Islamic fundamentalists in 1992 which was regarded as a tragedy for women's rights.

Islamic fundamentalism of any kind in essence looks upon women as sub-humans, fit only for household slavery and as a means of procreation. Such an outrageous view has incredibly been elevated to the status of official policy with the coming to power of the ignorant Taliban. Not only the Jihadis (Northern Alliance etc.) and Taliban but all Islamists (advocates of an Islamic political system) target women's rights as a first priority, citing mediaeval *Sharia* (Islamic law) as their authority.

With the coming to power of Islamic fundamentalists in 1992, women's right to full participation in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life of the country was drastically curtailed and later on summarily denied them by the Taliban. Under the latter, women were totally deprived of the right to education (all girls' schools were closed down), of the right to work (all women were ordered to remain in their houses and employers were threatened with dire consequences for taking up female employees), of the right to travel (no woman could venture out of the house alone and unaccompanied by a prescribed male member of the woman's immediate family), of the right to health (no woman could see a male doctor, family planning was outlawed, women could not be operated upon by a surgical team containing a male member), of the right to legal recourse (a woman's

IRIN, November 5, 2009

Nine million Afghans living on less than a dollar a day - survey

Less than 30 percent of people hav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Over 90 percent do not have access to proper sanitation

The average per capita monthly expenditure of nine million Afghans is less than 66 US cents a day, and millions of other Afghans spend about \$42 a month, according to a summary of Afghanistan's new National Risk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NRVA).

NRVA 2007/08 was produced by the government with European Union funding and in collaboration with aid agencies.

A bleak picture is painted:

- * 26 percent literacy rate (12 percent female and 39 male)
- * 24 percent of all child deliveries are attended by a skilled birth attendant
- * Less than 30 percent of people hav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 * Over 90 percent do not have access to proper sanitation
- * About 20 percent have electricity in their homes.
- * Half of the estimated population of 25 million is under 15

Characters Count: 1266

URL for news «Nine million Afghans living on less than a dollar a day - survey»
<http://www.rawa.org/temp/runews/2009/11/05/in-brief-nine-million-afghans-living-on-less-than-a-dollar-a-day-survey.html>

News Archive of the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RAWA)**

Health News, November 11, 2009

UNICEF: More than half of Afghan children suffer from malnutrition

The report shows that 59 per cent of Afghanistan's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do not get enough to eat, leading to developmental problems

Eight years after the start of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end Taliban rule in Afghanistan, more than half of all children under age five suffer from malnutrition, a UNICEF official told the German Press Agency dpa Wednesday.



Afghanistan has the highest percentage rate of malnourished children, though India has more in absolute numbers: 61 million.

'Nutrition is somewhat better (now), but not much,' said Daniel Toole, UNICEF's South Asia director, as the UN agency for children released a report tracking global progress in maternal and child nutrition.

The report shows that 59 per cent of Afghanistan's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do not get enough to eat, leading to developmental problems.

Toole said one of the main problems faced by UNICEF is getting information to mothers in the traditionally oriented country.

'Afghan women have less contact with health workers,' Toole said. 'Many health workers are

'men and, traditionally, women are not allowed to have contact with men who are not family.'

That's why it's important to train more women in the health care field, he said.

Another problem is the low level of development in the country, combined with a widespread lack of education after three decades of armed conflict. Health care is often inadequate.

The UNICEF report shows that most malnourished children are in South Asia, 83 million of a worldwide 200 million. Afghanistan has the highest percentage rate of malnourished children, though India has more in absolute numbers: 61 million.

Social and hygienic problems are two major issues facing Afghanistan. Many women marry young and bear children early in life. Many of those are born underweight.

Additionally, many mothers opt not to nurse, preferring water to breast milk. That becomes a problem when the water is dirty. More than 600 million of India's population of 1.1 billion have no access to sanitary facilities.

Characters Count: 2401

URL for news «UNICEF: More than half of Afghan children suffer from malnutrition»
<http://www.rawa.org/temp/runews/2009/11/11/unicef-more-than-half-of-afghan-children-suffer-from-malnutrition.html>

News Archive of the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RAWA)

RAWA

Afghan Women's Mission, October 3, 2009

Afghan Women Resist Occupation and Fundamentalism - RAWA Tour USA 2009

A nation-wide tour of Zoya, a member of RAWA in October 2009, exactly 8 years after the start of the US war.

Afghan Women's Mission is pleased to announce a nation-wide tour of Zoya, a member of RAWA in October 2009, exactly 8 years after the start of the US war. Zoya will share the message of RAWA in New York, Washington DC, Boston, Iowa, Los Angeles, Berkeley, and San Francisco.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WWW.RAWA.ORG

Click [here](http://www.afghanwomensmission.org/cgi-bin/cal/calendar.pl?view=Month&event_id=232&month=10) (http://www.afghanwomensmission.org/cgi-bin/cal/calendar.pl?view=Month&event_id=232&month=10) for a detailed calendar of events.

About Zoya

Twenty eight year old Zoya is a member of RAWA (<http://www.rawa.org>), the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Like many RAWA members, Zoya has witnessed and endured more tragedy and terror than most people do in a lifetime. Zoya grew up during the wars that ravaged Afghanistan and was robbed of her mother and father when they were murdered by fundamentalists - Zoya was only fourteen. Devastated by so much death and destruction, she fled Kabul with her grandmother and started a new life in exile in Pakistan. After attending a school funded by RAWA, she joined the underground women's organization and continues their work resisting fundamentalism and war today. Zoya has traveled across the world speaking about her experiences and the work of RAWA.

Because RAWA is an underground organization, members like Zoya do not reveal their real identity for fear of being persecuted.

"The message of RAWA to freedom-loving people is to support the democratic organizations of Afghanistan. Freedom, democracy and justice cannot be enforced at gunpoint by a foreign country; they are the values that can be achieved only by our people and democracy-loving forces through a hard, decisive and long struggle." -- Zoya in a June 2009 interview with Elsa Rassbach (<http://www.zmag.org/znet/viewArticle/21539>), after testifying to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German Parliament.

SPECIAL COMMEMORATIVE POSTER FOR ZOYA TOUR

Bay-area based artist Doug Minkler (<http://www.dminkler.com>), has created a special commemorative poster for the tour, shown at right.

Minkler says, "The invitation to help RAWA publicize Zoya's US tour is a great honor. I am inspired by RAWA's courage, community projects and principled pro-democracy positions and it is my hope that my colorful depiction of the mythical phoenix opposing the gray US death drones and destruction will similarly inspire the viewer to find out more about the work of RAWA. I take great pride in standing with RAWA and hope that if I was in their shoes, I would exhibit the same strength."

ARTIST STATEMENT:

Corporations want artists to glorify their wars, their products and their philosophies. I make posters for my own preservation, that is, planetary preservation. My prints are inspired not by rugged individualism, but by the collective humor, defiance, and lust for life exhibited by those on the margins.

The US Government claims that only through a massive military economy and preemptive wars can peace and justice be maintained. I am among a growing number of artists who disagree. We are asking, "Peace for who?" and "What kind of justice?" And, with our art, we are answering: "Peace for all nations" and "Egalitarian justice". We are putting our creativity in the service of like-minded organizations.

Past collaborations include: International Longshore Workers Union, Veterans for Peace, Rain Forest Action Network, SF Mime Troup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Lawyers Guild, Committee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El Salvador, United Auto Workers, Africa Information Network, Ecumenical Peace Union, ADAPT, De-Bug, Cop Watch, Street Sheet and United Educators of San Francisco.

URL for news «Afghan Women Resist Occupation and Fundamentalism - RAWA Tour USA 2009»

<http://www.rawa.org/rawa/2009/10/03/afghan-women-resist-occupation-and->

[Home](#)[Join or Donate](#)[Events](#)[News & Analysis](#)[Get Involved](#)[Resour](#)

[Sign the Troops Home Now petition online...](#) [Download the Troops Home Now petition...](#)
[The Great Debate: Stop the War challenges the Labour government, Conservatives and Liberal Democrats.](#)

Afghan people want immediate end to US occupation

Malalai Joya was elected an Afghan MP in 2005 but suspended from office in 2007 for her criticism of the warlords that dominate the Afghanistan parliament. She is the survivor of four assassination attempts.

By **Malalai Joya**
 12 November 2009

As an Afghan woman who was elected to Parliament, I am in the United States to ask President Barack Obama to immediately end the occupation of my country.

Eight years ago, women's rights were used as one of the excuses to start this war. But today, Afghanistan is still facing a women's rights catastrophe. Life for most Afghan women resembles a type of hell that is never reflected in the Western mainstream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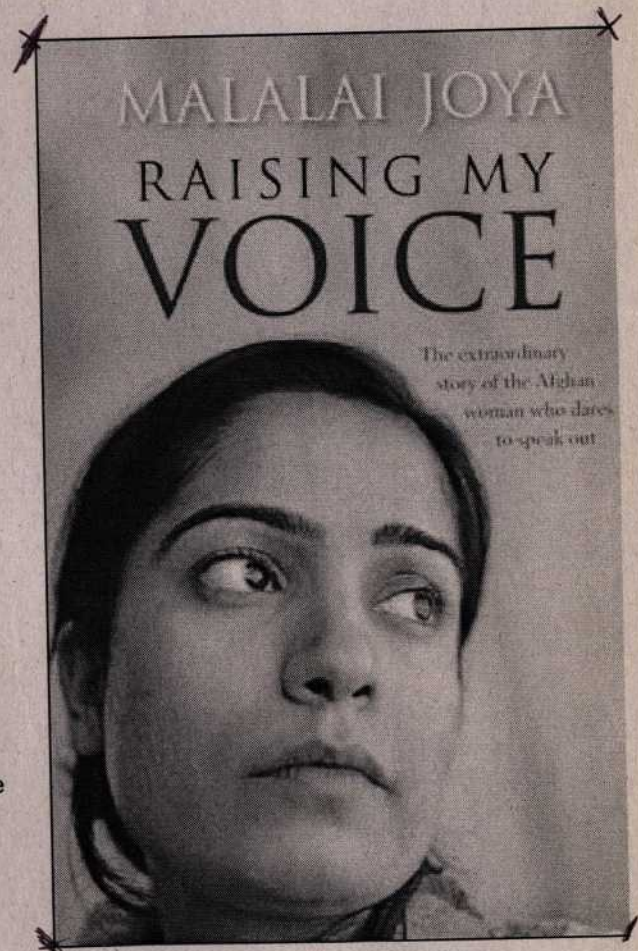
In 2001, the US helped return to power the worst misogynist criminals, such as the Northern Alliance warlords and druglords. These men ought to be considered a photocopy of the Taliban.

The only difference is that the Northern Alliance warlords wear suits and ties and cover their faces with the mask of democracy while they occupy government positions. But they are responsible for much of the disaster today in Afghanistan, thanks to the US support they enjoy.

Taliban

The US and its allies are getting ready to offer power to the medieval Taliban by creating an imaginary category called the "moderate Taliban" and inviting them to join the government. A man who was near the top of the list of most-wanted terrorists eight years ago, Gulbuddin Hekmatyar, has been invited to join the government.

Over the past eight years the US has helped turn my country into the drug capital of the world through its support of drug lords. Today, 93 percent of all opium in the world is produced in Afghanistan. Many members of Parliament and high ranking officials openly benefit from the drug trade. President Karzai's own brother is a well know



drug trafficker.

Meanwhile, ordinary Afghans are living in destitution. The latest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Index ranked Afghanistan 181 out of 182 countries. Eighteen million Afghans live on less than \$2 a day. Mothers in many parts of Afghanistan are ready to sell their children because they cannot feed them.

Afghanistan has received \$36 billion of aid in the past eight years, and the US alone spends \$165 million a day on its Yet my country remains in the grip of terrorists and criminals. My people have no interest in the current drama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ince it will change nothing in Afghanistan. Both Karzai and Dr. Abdullah are hated by Afghans for being US puppets.

Truth

The worst casualty of this war is truth. Those who stand up and raise their voice against injustice, insecurity and occupation have their lives threatened and are forced to leave Afghanistan, or simply get killed.

We are sandwiched between three powerful enemies: the occupation forces of the US and NATO, the Taliban and the corrupt government of Hamid Karzai.

Now President Obama is considering increasing troops to Afghanistan and simply extending former President Bush's wrong policies. In fact, the worst massacres since 9/11 were during Obama's tenure. My native province of Farah was bombed by the US this past May. A hundred and fifty people were killed, most of them women and children. On Sept the US bombed Kunduz Province, killing 200 civilians.

My people are fed up. That is why we want an immediate end to the US occupation.

See also:

Afghanistan's "bravest woman" supports anti-war soldier

Powered By Page_Cache by Ircmaxell

**AMNESTY
INTERNATIONAL**



in your country.

> [Home](#) > [Learn About Human Rights](#) > [Human rights by country](#) > [Afghanistan](#)

AFGHANISTAN

HUMAN RIGHTS IN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Head of state and government **Hamid Karzai**

Death penalty **retentionist**

Population **28.2 million**

Life expectancy **42.9 years**

Under-5 mortality (m/f) **232/237 per 1,000**

Adult literacy **28 per cent**

Millions of people living in southern and eastern Afghanistan, terrorized by the Taliban, other insurgent groups and local militias ostensibly allied with the government, suffered insecurity that further restricted their already limited access to food, health care, and schooling. Indiscriminate attacks, abductions and the targeting of civilians reached unprecedented levels. The Taliban and other anti-government groups significantly expanded their attacks to cover more than a third of the country, including areas once considered relatively safe in the centre and the north. Increased military attacks between anti-government groups and US and NATO troops resulted in more than 2,000 civilian deaths. The government failed to maintain the rule of law or to provide basic services to millions of people even in areas under its control.

BACKGROUND

In January, the Afghan-international Joint Co-ordination Monitoring Board (JCMB) acknowledged that little headway had been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on Peace, Justice and Reconciliation. The 2005 Action Plan called on the Afghan state to remove human rights abusers from positions of power, encourage institutional reform, and establish an accountability mechanism.

In its March annual review, the JCMB conceded that progress had been slow in the area of human rights. The JCMB also acknowledged that there was still insufficient civilian oversight of government security forc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most notably the National Directorate of Security (NDS), Afghanistan's intelligence agency.

In June, the government launched the Afghanista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S), a road

map for development until 2013. The ANDS is counterpart to the 2006 Afghanistan Compact, a political agreement between the Afghan government and donor countries.

JUSTICE SYSTEM

Judicial and security sectors lacked the personnel, infrastructure, and political will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serves as the government's lead agency for the implementation and mainstreaming of human rights, did not sufficiently collaborate with the Afghanistan Independent Human Rights Commission (AIHRC). Without co-operation, recommendations by the AIHRC, including for investigations into military operations resulting in civilian casualties, were largely ineffective.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low wages and a lack of personal security are often cited as reasons for judges, prosecutors, and other civil servants working in the justice sector being susceptible to corruption, which is believed to be widespread. Citizens lacked confidence in the formal justice institutions and regarded them as slow, ineffective and often corrupt. Most people, and in particular women, had difficulty accessing courts and legal assistance; most could not afford court fees or travel costs. Traditional jirgas and shuras (informal tribal councils), which operate outside the formal justice system and have led to violations of the right to fair trial, continued to handle an estimated 80 per cent of all disputes, particularly in rural areas.

"Civilian casualties have been increasing since 2001 and 2008 proved to be the bloodiest year yet."

The trial proceedings continued of Afghan detainees from Guantánamo and Bagram transferred to the Afghan government for prosecution, but failed to meet national or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The trials were undermined by serious flaws including lack of defence counsel and inadequate time to prepare a defence, the use of confessions obtained by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nd denial of the right to examine evidence and confront witnesses. A presidential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March to review trial complaints.

IMPUNITY

Even in areas of the country under government control, impunity prevailed at all levels of administration. No effective accountability mechanism had been established and only a handful of those responsible for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uring three decades of conflict have been brought to justice, mostly in other states under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Many regional officials and militia commanders continued to perpetrate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impunity.

ARBITRARY ARRESTS AND DETENTIONS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by the police and other official security agencies, as well as private militias working with Afghan and international security forces, were widespread.

The NDS continued to arbitrarily arrest and detain suspects without allowing access to defence lawyers, families, courts or other outside bodies. Scores of detainees were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cluding being whipped, exposed to extreme cold and deprived of food.

More than 600 detainees were being held at the US-run Bagram military airbase and other US military facilities outside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domestic laws. Some have been detained for several years and denied their right to due process, including access to lawyers and habeas corpus review.

DEATH PENALTY

Seventeen people were executed in 2008 and at least 111 others were on death row. The Supreme Court of Afghanistan upheld 131 death sentences issued by lower courts which await President Karzai's approval. The trial proceedings in most cases violat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fairness, including providing inadequate time for the accused to prepare their defence, lack of legal representation, reliance on weak evidence and the denial of the defendants' right to call and examine witnesses.

- On 22 January, Sayed Parwiz Kambaksh was sentenced to death for "blasphemy" in a grossly unfair trial. He was convicted of downloading material from the internet on the role of women in Islam, adding commentary and distributing it at Balkh University in northern Afghanistan. On 21 October, following an appeal hearing, the sentence was commuted to 20 years' imprisonment.

In December, Afghanistan voted against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calling for a worldwide moratorium on executions.

ABUSES BY AFGHAN AND INTERNATIONAL FORCES

Civilian casualties have been increasing since 2001 and 2008 proved to be the bloodiest year yet. Most civilians were injured as a result of insurgent attacks but some 40 per cent (795) of civilian casualties were due to operations by Afghan and international security forces - a 30 per cent increase in the 559 reported in 2007.

Serious concerns about the indiscriminate and disproportionate use of air strikes were raised following several grave incidents. On 6 July US-led coalition air strikes in Deh Bala district in Nangarhar Province reportedly killed 47 civilians, including 30 children; on 21-22 August air strikes

carried out in Shindand district of Herat Province resulted in more than 90 civilian casualties, including 62 children.

In September 2008, responding to criticism regarding the high number of civilian deaths, NATO again revised its rules of engagement to limit the use of immediate air strikes if ground troops come under attack, giving more time to plan for an air strike and seek approval from higher levels of command.

Some families whose relatives were killed or injured and those who had property destroyed received financial compensation from governments involved in military operations. However, Afghan and international forces lack a systematic programme for assisting those injured by Afghan and international military forces.

NATO and US forces continued to hand over detainees to the NDS, Afghanistan's intelligence service, which perpetrate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orture and arbitrary detention with impunity.

ABUSES BY ARMED GROUPS

Criminal gangs and armed groups (some ostensibly allied to the government) abducted foreigners and attacked business owners, aid workers, teachers, education aid projects and schools to destabilize security and halt development efforts throughout the country. Seventy-eight employees of various NGOs were abducted and another 31 killed. The Taleban and other insurgent groups stepped up their "tactic" of deliberately targeting women, including kidnapping.

- On 13 August, three international aid workers and an Afghan driver working for the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were killed in Logar province by Taleban insurgents. A second Afghan driver was severely wounded.
- On 20 October, a British Christian Aid organization worker was shot dead in broad daylight in Kabul by Taleban insurgents on a motorcycle.

Armed criminal groups kidnapped high-profile Afghans for ransom. Most abductions went unreported because victims and their families feared retaliation and corrupt police officials with ties to armed groups.

- On 19 October, Humayun Shah Asefi, a relative of the late King Zahir Shah, was kidnapped by armed men from his home in Kabul. He was rescued a week later by Afghan police.

SUICIDE ATTACKS

Suicide attacks resulted in 373 deaths. Taleban and other insurgent suicide attacks with military or

police targets often resulted in high civilian deaths and injuries.

- On 17 February, a suicide bomber blew himself up close to a crowd of around 500 people watching a dog fight in Arghandab, Kandahar Province. Around 100 civilians were killed and dozens were injured.
- On 7 July, a suicide car bomb outside the Indian Embassy in Kabul killed 41 people and wounded nearly 150 others.
- On 30 October, a Taliban suicide bomber target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in central Kabul, killing five civilians and leaving more than 21 injured.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flourished briefly after the fall of the Taliban in 2001, was eroded by threats and attacks from both state and non-state actors.

The Taliban and other anti-government groups targeted journalists and blocked nearly all reporting from areas under their control.

- On 7 June, Abdul Samad Rohani, an Afghan journalist working for the BBC in Helmand province, was abducted; he was shot dead the next day, possibly in response to his investigation of the narcotics trade.
- In May, journalist Nilofar Habibi was stabbed by a woman on the doorstep of her home in Herat reportedly for working as a television journalist.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NDS, and the Ulema Council (council of religious scholars) attempted to curtail media independence.

- In July, the NDS detained Mohammad Nasir Fayyaz, presenter of the TV programme The Truth, for "misrepresenting" government officials. Mohammad Nasir Fayyaz was released shortly after but reportedly remained under surveillance.

In September 2008, Ahmad Ghous Zalmi, a journalist and former spokesperson for the Attorney General, and Mullah Qari Mushtaq were each sentenced to 20 years' imprisonment for publishing a Dari translation of the Qur'an without the Arabic text alongsid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lthough women increasingly participated in politics and public life, their rights remained

constrained by social prejudice and violence within the home and by armed groups. The number of women holding senior ministerial positions decreased.

- On 28 September, Malalai Kakar, the highest ranking policewoman in Afghanistan, was killed by Taleban gunmen near her home in Kandahar.
- On 12 November, two men on a motorcycle used water pistols to spray acid on some 15 girls walking to school in Kandahar, blinding at least two of them and disfiguring several others. Ten Taleban insurgents were later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attack.

Women suffered from high rates of domestic violence and had little, if any, recourse to legal protection. According to the AIHRC, 60 to 80 per cent of all marriages were forced and under-age marriages occurred in high numbers. Women who sought to flee abusive marriages were often detained and prosecuted for alleged offences such as "home escape" or "moral" crime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e Penal Code.

LACK OF HUMANITARIAN ACCESS

Insecurity caused by the Taleban and other insurgent groups in the south and east stopped many aid organizations from operating in these areas. In August, the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halted all aid operations in Afghanistan after four workers were killed by militants in Logar province. In Kunar province, the significant Taliban presence prevented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from directly providing supplies to Pakistani refugees who had fled fighting between the Pakistani security forces and pro-Taleban insurgents in Pakistan's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RIGHT TO HEALTH AND EDUCATION

The year saw increased attacks on schools, the intimidation of teachers and female students primarily by the Taleban, and greater disruption of classes because of armed conflict. In areas controlled by the Afghan government, both health and education systems suffered from inadequate funding, lack of qualified professionals, and security problems. Deteriorating security forced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to shut down a significant number of health clinics, the only health services available to many people.

INTERNALLY DISPLACED PEOPLE AND RETURNEES

The Afghanistan internally displaced people task force, comprising international aid agencies and the government, estimated that more than 235,000 people were internally displaced. They faced desperate circumstances in conflict zones as international and local humanitarian agencies faced

difficulties in reaching them.

More than 276,000 Afghan refugees living in Iran and Pakistan returned home in 2008 according to UNHCR. Many returnees faced destitution, with scarce job opportunities and lack of access to land, housing, water, health care and education. Some returnees became internally displaced because their property had been appropriated by local power-holders.

In September, more than 20,000 people fled from Pakistan to eastern Afghanistan to avoid the fighting between the Pakistani security forces and pro-Taliban insurgents in Pakistan's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AMNESTY INTERNATIONAL REPORTS

Afghanistan: Prisoner of conscience sentenced to death for downloading and distributing materials from the internet (29 January 2008)

Afghanistan: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continue to struggle for women's rights (7 March 2008)

Afghanistan: Arms proliferation fuels further abuse (3 April 2008)

Afghanistan: Death Penalty – Around 100 unnamed individuals sentenced to death (9 May 2008)

Afghanistan: Civilians suffer the brunt of rising suicide attacks (5 June 2008)

Afghanistan: No more empty promises in Paris (11 June 2008)

Afghanistan: Further Information on Death Penalty – Sayed Perwiz Kambakhsh (31 October 2008)

Afghanistan: Submission to the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 Fifth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May 2009 (3 November 2008)

Afghanistan: Stop Move Toward Wide Use of Executions, 12 November 2008
